학술기획

현대철학에 나타난 인간관

서양철학의 인간관 ···분석철학을 중심으로 〈I〉

강원대 교수·철학 장재덕

I. 현대철학의 출현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기계와 기술에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혁, 나아가서 세계관과 인간관에서의 변화까지 가져 옴으로써 유럽전역에 걸쳐 근대시민 사회의 확립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강대국들이 생산을 독점하고 세계시장을 위하여 대립하게 되면서 이성과 진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근대시민들의 세계관과 인간관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현대철학의 복잡한 양상이 나타난다.

마르크스주의, 실존철학, 분석철학등 현대철학의 주류들을 독일관념론의 최고봉인 Hegel 철학에 대한 반동으로 본것은 참으로 M. White교수의 뛰어난 통찰력 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Hegel철학에서 관념을 물질로 대치함으로써 변증법적 관념론으로 부터 변증법적 유물론으로의 대전환을 성취할 수 있었다. 실존철학은 Hegel철학의 객관적 체계에 반대하여 진리의 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리보다는 구체적이고 생동적인 삶의 진리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분석철학은 Hegel철학의 형이상학에 반대하여 지금까지 본질적인것으로 생각되던것을 현상적인것에서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적인 것들은 언어속에 나타나므로 언어분석을 통하여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II. 관념론 반박

B. Russell 과 G.E. Moore는 당시 영국의 탁월한 신헤겔주의 관념론자였던 F.H. Bradley(1846-1924)의 제자였으며 그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곧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신헤겔주의의 접근방법에 환멸을 느끼고 관념론적 사고의 기본적 원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종국적으로는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Moore는 관념론자들에 의하여 발전된 형이상학적 명제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주장하는가를 이해했다고 스스로 만족할때 까지는 그러한 명제들의 진위를 고찰하기를 거부했다. 관념론에 대한 Moore의 두가지 중요한 공격도구는 상식의 받아들임과 언어의 일상적인 의미에 대한 반복적인 호소이다.

관념론자의 기본적인 원리의 하나인 관계들의 내면성 원리(the doctrine of internality of relations)에 의하면 모든 관계는 내적이다. 사물은 그 관계때문에 부분적인 것이오 그 관계가 변하면 그것은 다른 사물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내가 개를 한마리 가지고 그것을 남에게 주면 나는 다른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관계들의 하나가 변했기 때문이다. 관념론자가 모든 관계들이 내적이라고 했을 때 Moore는 그것이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거짓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Moore는 상식에의 호소에 기초하여 어떤 관계들은 내적이고 다른 어떤 관계들은 외적이라고 주장한다.

Russell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관념론을 거부했다. Russell이 관계의 내면성 원리를 거부하는 주요논증의 하나는 그 주장이 수학을 위한 그것의 귀결들 때문에 거짓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모든 관계가 내적이라면 궁극적인 실재가 하나이오 오직 하나의 진리가 있다고 말함에 있어 관념론자들이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학의 명제들이 부분적인 진리조차도 아니라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고 Russell은 논증한다.

따라서 관계들의 내면성 원리는 거짓이오 그것으로부터 연역되는 형이상학적 견해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Russell에 의하면 관념론자의 오류는 근본적으로 논리적 오류이다. 그들은 모든 유의미한 명제들이 주어-술어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적합한 논리는 술어논리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관계논리도 포함해야 한다.

이리하여 관계들의 본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문제는 수학적-논리적 고찰들에서 Russell에 의하여 해결된 셈이다.

이상에서 Moore와 Russell의 관념론에 대한 비판 특히 관계의 내면성 원리의 거부는 외적관계를 정당화 함으로써 다원적인 세계, 다원적인 진리를 가능하게 했을뿐만 아니라 한 실재의 부분으로서가 아닌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간의 위상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반형이상학적

L. Wittgenstein에 의하면 형이상학적 문제에 관한 논증의 실제적 난점은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그것들을 해결할만한 적절한 방법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유의미한 명제는 경험적이거나 동어반복적이어야 하는 데 형이상학자들의 문장들은 경험과학의 명제들도 아니오 논리학이나 수학의 동어반복도 아니므로 그것들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철학은 일차적으로 언어를 명료화하는 행위이오 우주에 대한 진리의 원천이 아니다.

따라서 철학자의 과제는 형이상학적 문제 때문에 당혹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무의미하고 답변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Wittgenstein은 후기사상에서 언어의 복합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형이상학적 혼란이 생긴다고 믿게 되었다, 우리의 언어가 작용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함이 형이상학적 물음들을 묻고 대답하려는 유혹에 나타나는 언어적 욕망(linguistic anxiety)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철학자의 과제는 여전히 언어를 명료화하고 혼동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그는 그것을 형이상학자에게 그의 물음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논증함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형이상학적 물음을 물으려는 유혹을 일으킨 언어의 이러한 특성들을 기술함으로써 해야 한다는 것이다.

Russell에 있어서 모든 수(Number)는 논리적 허구(logical fiction)이다. 수들은 집합들의 집합들이오 집합들은 논리적 허구이므로 말하자면 수들은 두단계의 허구들 즉 허구들의 허구들인 셈이다. 그러므로 수들은 세계의 궁극적 구성요소들의 일부 일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때 물리학의 원자, 철, 미립자들도 논리적 허구이다. 책상이나 의자는 일련의 특정한 것들의 집합(a series of classes of particulars)인데 여기서 특정한 것들이 감각소여(sense data)를 의미하므로 역시 감각소여들의 논리적 구성 즉 논리적 허구 이외의 다른 어떤것이 아니다. Russell은 실제적(real)인것과 비실제적(unreal)인것을 구분한다. 우리가 실제적이라고 부르는 종류는 하나의 전체계(one of a whole correlated system)이오 비실제적인것 가령 유형이나 환상같은 종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비록 정신(mind)이 내감(inner sense)에 주어진 자료 즉 심상 및 감정(images and feelings)과 같은 내관적 의식(introspective awareness)의 대상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세계로 향하든 내부 세계로 향하든 의식의 어떤 행위에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자료에 부가하여 경험을 가지거나 의식행위를 수행하는 주체 내지 자아가 있는것처럼 Russell에게 보여졌었다. 그러나 논리적 구성주의(logical constructionism)의 정신이 Russell에게 증가함에 따라 행위를 수행하는 의식이 주체를 믿을 수 있는 보장이 없는것 같으므로 그는 어떤 그러한 경험의 구성요소도 실제로 발견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것이 있는것 처럼 보이는 것은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바 그 문장들의 문법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나는 빛의 섬광을 보았다"에서 "나는"과 "보았다"는 해석으로 부가된 것이라는 말이다.

내가 나무를 보고 있다면 내가 직접 의식하는 시각자료(the visual datum)는 내정신의 부분과 나무의 부분 둘다이다. 그 나무의 경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각 혹은 다른 시각으로부터의 다른 경험들과 결합될때 그것은 나무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기억에 의하여 이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자료들과 함께 단일한 의식영역에 묶여있는 다른 자료들과 결합될때 이것은 정신을 구성하게 된다.

IV. 그림이론

Wittgenstein에 의하면 세계를 구성하는것은 사물(Dinge)이 아니라 사실(Tatsachen)이며 언어를 구성하는것은 이름이 아니라 명제이다. 여기서 사실들로 구성되는 세계란 우리에게 인식되고 언어로 기술되는 세계를 의미한다.

언어의 최소단위가 되는것은 요소명제(Elementarsatz)이며 이 요소명제의 진리치는 다른 요소명제의 진리치로부터 추론될 수 없고 실재와의 관계에서만 결정된다고 한다. 명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이름들이오 따라서 요소명제는 이름들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소명제는 사태(Sachverhalt)의 그림이다. 여기서 사태란 세계를 구성하는 사실들의 최소단위 혹은 가능적 사실로 해석된다. 그림의 요소인 이름들과 사태의 요소인 대상들 사이에 대응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Wittgenstein은 그림관계(Abbildende Beziehung)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림관계만으로 그림이 될 수는 없는것 같다. 사태는 단순한 대상들의 모임이 아니라 대상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상들 사이의 결합방식을 보여주는 이름들 사이의 결합방식을 Wittgenstein은 그림의 구조(Struktur des Bildes)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하나의 그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그림요소 사이의 그림관계와 사태의 구조와 그림의 구조의 일치가 필요하게 된다.

Wittgenstein도 의미를 뜻(Sinn)과 지시체(Bedeutung)로 나누어 생각하지만 Frege와는 달리 이름은 지시체만 가지고 명제는 뜻만 가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 이름은 한 대상을 의미한다.

한 대상이 바로 그 이름의 의미라는 말이다. 한 명제의 의미는 그 명제가 그려내고자하는 사태이다. 그런데 만일 명제의 의미가 그것이 그리고자하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명제가 거짓일때는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으므로 그 명제는 의미없는 명제가 되고 말것이다. 여기서 그림이론이 문장들의 이해뿐만 아니라 사상의 이해에 관한 이론이기도 하며 우리가 문장들을 가지고 의미할 수 있는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의미할 수 있는것에 관한 이론이기도 하다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V. 언어놀이와 삶의 양식

Wittgenstein은 언어놀이(Sprachspiel)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또한 나는 언어와 이 언어에 얽혀있는 행동으로 구성된 전체를 '언어놀이'라고 부른다"

언어를 언어놀이라는 실제적 현장에서 바라보면 언어는 언어놀이 안에서 도구처럼 사용된다. 도구가 그 기능에 의해 특징지워지듯 한 단어는 그 용도에 의해 특정지워진다. 언어가 놀이와 비교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언어와 놀이가 다 규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활동이라는 점이다.

Wittgenstein은 전기사상에서 이름들의 의미는 그것들이 지시하는 대상들이오 명제들의 의미는 그 명제들이 그리고자 하는 사태라고 했다. 그리고 후기사상에서는 말의 의미는 그것의 사용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말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어도 곤란하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말의 의미가 마음대로 변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말의 의미가 변화하되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변화할때 가족유사(family resemblance) 현상이 나타남을 보게될 것이다.

A, B, C, D, E 가 각각 한 특징들을 나타내고 e, d, c, b, a 가 각각 한 단어에 의해 불리워지는 사물들이라고 할때 아래의 도식에서 완전한 공통성은 없지만 유사성때문에 e, d, c, b, a 는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워 질 수 있을 것이다.

e	d	c	b	a
A	A	A	A	B
B	B	B	C	C
C	C	D	D	D
D	E	E	E	E

언어가 독자적인 현상이 아니라 다른 행위들과 얽혀있는 현상이라는 사실과 언어의 의미설명이 예들을 통한 훈련에서 가능한 것은 사람들이 일정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런것들을 Wittgenstein은 삶의 양식(forms of life)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VI. 실존적 인간과 분석적 인간

실존철학과 분석철학에 있어서 우선 인간탐구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존철학에서도 연상심리학(associationism)에서는 내관법(introspection)을 사용하여 인간의 본성에 접근해간다.

반면에 분석철학에서는 행동주의(Behariorism)의 방법을 사용한다. 인간성에 대한 직접탐구를 피하고 언어분석을 통하여 언어구조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을 탐구하려 한다.

실존철학에서는 구체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 주체성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반하여 분석철학에서는 감각소여들의 논리적 구성물로서 허구적인 인간상을 제시함으로써 주체 내지 자아를 내세우기가 어렵게 되었다. 실존철학에서는 비합리적인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하여 분석철학에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냉철한 머리를 가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실존철학에서는 인간과 사회의 어두운면을 들추어냄으로써 본래적인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는데 반하여 분석철학에서는 인간자신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표준으로 제시하여 현실개혁의 정신으로 미래로 지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것 같다.

그러나 실존과 분석은 너무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존은 인간의 내면을 추구하고 분석은 그 외면을 추구하는것 같다. 한 인간을 생각할때 그 내면과 외면이 동시에 탐구 되어야 바람직 할 것이므로 실존과 분석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할 처지가 아니다. 상호보완적이어야 할 것이다.

현실개혁 통한 미래지향적 인간상 제시

언어분석통하여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시도

분석철학에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냉철한 머리를 가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글싣는순서

현대철학의 주요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인간존재의 의미와 세계와의 연관성등을 고찰, 현대철학의 사고영역을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註〉

I. 서양철학의 인간관··· 분석철학을 중심으로
II. 중국철학의 인간관
III. 막시즘의 인간관

歲時錄

애석함 금할길 없는 '痛惜'

"양국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것은 유감이며,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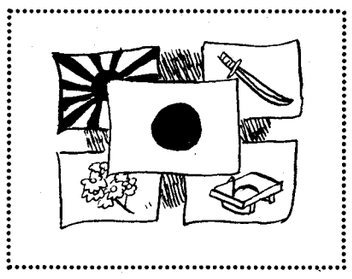
지난 84년 전두환 前대통령이 일본을 공식방문했을때 히로히토가 했던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사과의 말이다.

"우리나라에 의해 초래된 이 불행했던 시기에 귀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고 본인은 痛惜의 念을 금할길 없습니다"

이말은 지난 24일 노태우대통령의 일본 공식방문때 히로히토의 뒤를 이은 아키히토가 한 사과말이다.

일본국왕이 몇마디 내뱉은 사과말, 그것도 제대로 이해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사전적의미도 매우 복잡한 痛惜의 念이란 표현을 빌어 말재주를 부린 사과문은 참으로 우리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노대통령의 방일 앞두고 온통 매스컴은 일왕의 사과문안에 말초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일왕의 사과말 한마디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지나간 치욕의 역사가 지워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사과문으로 인해 방일의 목적이나 정치적 배경이나 타결해야할 양국간의 현안문제등이 뒷전으로 미뤄져야 할 만큼 의의가 대단한,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귀중했던 일황의 사과. 그러나 아무리 외쳐봐도 사과문을 열댓번씩



읽어봐도 역시 아리송하고 애매한 사과문은 무슨 의의를 갖게 되는지 의아스럽다.

사과를 받아내려고 몸부리치던 우리자신도 부끄럽지만 그나마 받아낸 일왕의 사과문안은 기분이 사과 안받으느만 못하다.

痛惜의 念.

痛惜은 일본발음으로 '쓰세키'라고 하며 사전적 의미로는 '심히 애석히 여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대단히 슬프게 애석해 하는 것'등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결국 痛惜의 念이라는 사과문은 많이 많이 애석해할 뿐 식민통치의 침략과 수탈을 뉘우치거나 잘못을 인정하겠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단지 84년 히로히토일왕의 사과문보다 애석함을 조금더 보태고 있는 셈이다. 그래도 몇몇 당사자들은 알 수 없는 몇마디를 일러 한일외교의 성과라 부른다. 식민통치의 아픔, 일제수탈의 슬픈역사만이 더할 뿐이며, 일본의 간교함이 더 치사스러워만 보이는 사과문을 일러···.

마음의 상태가 그림의 주제로 강력하게 묘사됨으로써 사물의 모양이 뒤틀리게 되는 20세기초에 나타난 '표현주의 미술' 그래서 극단적인 마음의 상태가 예술가의 개인적취향에 너무 치우쳐 있기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만큼의 의미와 관심을 갖게하기 어렵다는 표현주의 미술을 연상케하는 痛惜의 念.

일본사과문안과 관련된 일련의 행각들 참으로 痛惜의 念을 금할 길이 없다.

■ 대리점 개설문의 : 296-6264 ■ 소비자 보호상담 : 295-4548

본사: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315 TEL.295-5581~7

■ 서울 ● 마천 448-5600 ● 동선 924-1756 ● ● 수유 982-3334 ● 뉴코아(구관)537-6500 ● 쎈플라자쇼핑 849-6398 ● 신림 884-9771 ● 화양 466-9579 ● 묵동 976-4891 ● 연신내 354-8411 ● 천호 487-4300 ● 쌍문 906-7714 ● 뉴코아(백)536-0466 ● 미도파(명동) 776-6491 ● 롯데(본점)776-5642 ● 롯데(잠실) 417-2998 ● 롯데(새나라)418-9491 ● 현대(압구정)540-2391 ● 현대(무역센타)553-0229 ● 현대(반포)536-2233 ● 영동(백)540-2375 ● 신세계(미아리)980-6543 ● 뽀렘땅(백)779-1582 ● 한신코아979-4221 ● 그랜드 566-3625 ● 강남지하 556-8454 ● 대우센타 778-8657 ● 돈암 922-8384 ● 힐튼호텔 756-7409 ● 명동 779-2651 ● 청담 545-0257 ■ 인천 ● 인천 (032)72-5283 ● 주안 (032)867-3704 ● 부평 (032)523-8745 ● 희망 (032)421-2021 ■ 경기 ● 수원 (0331)43-8188 ● 안양 (0343)46-9855 ● 의정부(0351)2-3414 ■ 강원도 ● 속초 (0392)32-5019 ● 강릉 (0391)42-2061 ● 삼척 (0397)72-9273 ● 태백 (0395)52-5995 ● 동해 (0394)33-3434 ■ 대전 ● 대전 (042)256-6148 ● 대전중앙 (042)26-8180 ● 동양(백) (042)256-9940 ■ 충남 ● 온양 (0418)42-8451 ● 공주 (0416)54-2788 ● 대천 (0452) 34-0446 ● 서산 (0455)2-5394 ● 부여 (0463)32-0586 ● 천안 (0417)567-0939 ■ 충북 ● 제천 (0443)42-3425 ● 충주 (0441)43-7856 ● 청주 (0431)56-2854 ■ 광주 ● 가든(백) (062)225-3897 ● 화니(백) (062)225-3898 ■ 전남 ● 여수 (0662)62-5741 ● 순천 (0661)52-4902 ● 목포 (0631)2-1678 ● 광양(0667)2-0441 ■ 전북 ● 남원 (0671)2-2129 ● 전주 (0652)6-9109 ● 군산 (0654)2-5895 ● 이리 (0653)855-1058 ■ 대구 ● 대구중앙 (053)422-2623 ● 팔달쇼핑 (053)352-8408 ● 대명 (053)628-4242 ● 대우빌딩 (053)425-8609 ● 대구(백) (053)422-4399 ● 동아쇼핑 (053)351-3880 ■ 경북 ● 영주 (0572)2-7008 ● 안동 (0571)2-5251 ● 점촌 (0581)52-1462 ● 상주 (0582) 2-2245 ● 포항중앙 (0562)2-0606 ● 경주 (0561)42-2728 ● 구미 (0546)53-3690 ■ 부산 ● 스파쇼핑 (051)553-1259 ● 부산(백) (051)556-4877 ● 코오롱쇼핑 (051)246-7003 ● 유나(백) (051)247-2405 ● 미화당(백) (051)242-7421 ● 태화(백) (051)819-5012 ● 롯데1번가 (051)245-7814 ■ 경남 ● 마산오동 (0551)47-2250 ● 김해 (0525)2-9979 ● 진주 (0591)42-9800 ● 마산성안(백) (0551)41-4143 ● 충무 (0351)44-4747 ● 대우조선 (0558)680-6137 ● 울산 (0522)2-9977 ● 울산현대(백) (0522)32-3119 ● 주리원(백) (0552)2-0703 ■ 제주 ● 제주 (064)53-3888 ● 서귀포 (064)32-7563

* 시중에 유사품이 많으니 하이파이브 상표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